

고흥군,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선제적 대응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가 지난 2021년 대비 22일이나 빠른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근 군청 흉양홀에서 가축방역관련 비상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병원성 AI 방역 비상대책과 관련해 단계별 조치사항, 상황관리, 차단방역 등 방역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AI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대책 등이 논의됐다.

고흥군은 앞서 지난달부터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해 거점소독 시설 및 종오리 사육농가에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특별방역기간(2022년 10월~2023년 2월)중 출입이 통제되는 가금농장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매일 1회 전화예찰과 주 1회 농장방문 점검을 통해 AI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오리사육 농가 주변에는 생

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구축해 농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해 일제 차단하고 있으며, 고흥만과 해장만 간척지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입간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을 알리는 한편, 매일 살수차를 동원해 주요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의식”임을 강조하며, “읍·면의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미 이행 적발 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이 통제되는 가금농장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매일 1회 전화예찰과 주 1회 농장방문 점검을 통해 AI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오리사육 농가 주변에는 생

/이유빈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가 지난 2021년 대비 22일이나 빠른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근 군청 흉양홀에서 가축방역관련 비상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진도군, 군민의견함 운영

진도군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군민의견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민의견함은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군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7개 읍·면사무소 입구 쪽에 지난 9월 말부터 설치했다.

진도군 발전을 위한 공익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읍·면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군정에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군은 읍·면별 군민의견함 설치로 현장중심 행정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jindo.go.kr)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운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군민 소통 채널도 운영 중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을 펼치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의 신속 처리와 현장에서의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해남, 인구감소 대응 “내년에도 총력”

지역소멸위기 대응·공동대응협의체 재정비

해남군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2023년도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준비에 나섰다.

군은 각 부서별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인구문제 이해와 지자체 대응방안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의 이해와 접목방안 등을 전문가와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향후 정책개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소멸 문제는 행정과 군민 모두의 공통 과제로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민·관·공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체를 재정비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3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공무원과 군의

원, 교육관계자, 문화관광 전문가와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민들로 구성됐다.

협의체에서는 해남이 직면한 인구감소문제, 공동체 회복, 빈집 활용 방안,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시책 발굴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12월부터 내년 정책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28억 원을 확보해 추진중인 10개 사업도 매월 사항을 점검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욱 기자

완도, 61억 투입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선형 개선 및 재포장 실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6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선형 개선 및 재포장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40개 노선, 60개소 정비를 완료했으며, 5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도로 균열 및 부등

침하 등으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은 아스콘 덧씌우기, 차도 폭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도로 확장, 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불량 도로 개선 공사 등이다.

원활한 통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 표지, 차선

규제봉,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 보강과 주요 간선 도로변 환경 정비, 포트홀 보수, 퇴적된 배수 시설 토사 제거 등도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에 대해 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표지, 과속 방지턱, 안전 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점검했으며, 노후·훼손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백남영 기자

장흥, 겨울철 노인건강 ‘낙상’ 예방 교육 실시

장흥군은 경로당 15개소를 선정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낙상’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고령층 어르신 건강관리 가운데 ‘낙상’으로 인한 골절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노인 낙상은 골다공증이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걸음걸이, 균형감각, 시력 약화, 운동 부족, 이전의 골절 경험으로 인한 활동 수준 저하 등도 사고 위험을 높인다. 또한 ‘영양이 골절’ 발생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70세 이상 응급실에 방문하는 손상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낙상환자이며, 이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35.7%를 차지하고 있다. 낙상은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48%로 가장 많고, 도로 27.6%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백두연 기자

보성군, 2022 농특산물 기프티쇼 참가

보성군은 최근 5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농특산물 기프티쇼’에 참가해 농특산물도 보성의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했다고 밝혔다.

농특산물 기프티쇼에 보성군은 총 15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보성의 차와 도예, 천연염색 등을 소개했다. 특히, 키워품목에서는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된 보성키위 홍보에 주력했다.

보성군은 전국 최대 키워 주산지이며,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2회 보성키위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다. 축제 홍보를 위해 키워 시식·판매 부스도 운영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국내 차관련

박람회 참가를 20여 회 지원했으며,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내외 실정에도 5여 명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보성 차 등 농특산물의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프랑스 파리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프랑스 내 2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수출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보성군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종수 기자

